

21장. 다 찬양하여라

- (1) 다 찬양 하여라 전능 왕 창조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 (2)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 (3)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 (2) 눈물나며 깊은 한숨 설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9월 18일 (화) 기도 담당 : 김덕만 집사

2018년 9월 17일 (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21장
찬송	다같이
기도	성명문집사
성경봉독	시편 57:1-5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김명자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65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시편 57:1-5>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17일 (월)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을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곤고한 인생 길,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저희들 앞을 가로막지만,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이한 일들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정 경제도 살려주셔서, 꾸러 가는 일 없고 꾸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겪는 각양각색의 곤고함들로 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31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저희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온전케 회복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새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후반부로 접어든 새성전의 건축현장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어, 안전하고 거룩하고 위엄넘치는 새성전으로 지어저가게 하옵소서. 영장리 추모관과 관계된 행정적인 난제들도 잘 마무리 되어, 새문안의 장례사역이 속히 안착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빛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빛 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굽이굽이 고난으로 점철된 이 민족 역사에 놀랍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미련함과 방자함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반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도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핵을 쥐고 오만한 모습으로 버티는 북한의 지도부들의 간교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나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